

케이옥션 2023년 11월 경매

11월 22일, 오후 4시 신사동 본사에서 개최

- 예금보험공사가 위탁한 제프 쿤스 작품 2점 출품
- 박서보의 작품이 시리즈별로 6점, 이우환의 작품도 5점 선보여
- 서울시 유형문화재, <녹훈도감 선사어선 연회도 錄勳都監宣賜御膳宴會圖> 경매에 올라

오는 11월 22일(수)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열리는 케이옥션 11월 경매에 총 91점, 약 91억원어치가 출품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위탁한 제프 쿤스의 작품 <Encased-Five Rows> (16-20억)와 <Cow (Lilac): Easy Fun>(5-7억)을 선두로, 박서보의 연대별 작품 6점과 이우환의 시리즈별 작품 5점, 장욱진의 <나무>(1억6000만~2억원), 이견용의 <The Method of Drawing 76-1-2010>(5000~8000만원), 하중현 <접합>(2300~4000만원) 등이 출품된다. 또 김창열, 이대원, 김종학의 작품에 더해 전광영, 서승원, 최명영, 이배 등 미술시장 주요 작가들의 작품도 두루 경매에 오른다.

해외 미술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위탁한 제프 쿤스의 작품 2점을 비롯해 아야코 록카쿠의 <Untitled>(4억~7억5000만원), 로버트 인디애나의 <HOPE (Red/Yellow)>(1억6000만~3억5000만원), 야요이 쿠사마의 노란 호박 판화 <Pumpkin (YT)>(7000만~1억2000만원),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Two Paintings: Dagwood>(7000만~1억원)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의 에디션 작품이 합리적인 가격에 출품된다.

한국화 및 고미술 부문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녹훈도감 선사어선 연회도 錄勳都監 宣賜御膳 宴會圖>(3000~6000만원), 청자상감국화모란문표형병(8000만~2억원), 백자철화운룡문호(3500~8000만원) 같은 도자기, 소정 변관식의 <하경산수>(800~1500만원), 청전 이상범의 <추경산수>(800~1500만원) 등 회화작품 그리고 <삼층서탁>(500~1000만원), <책반달이>(450~800만원)가 경매에 오른다.

경매 프리뷰는 11월 11일(토)부터 현재 진행 중이며 경매가 열리는 11월 22일(수)까지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작품 관람은 예약없이 무료로 가능하며, 프리뷰 기간 중 전시장은 무휴이다.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30분) 경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케이옥션 회원(무료)으로 가입한 후 서면이나 현장 응찰, 또는 전화나 온라인 라이브 응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 경매가 열리는 22일 당일 은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매 참관이 가능하다.

K Auction

<주요 출품작>

미국 출신의 현대 미술가이자 키치의 제왕으로 불리는 제프 쿤스는 국내에서는 2011년 신세계 백화점과의 협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키치(Kitsch)'라는 말은 독일어로 '싸게 만들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싸구려 물건을 의미하지만, 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중 한명으로 그 별명이 무색하다. 그는 대중문화나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를 주제로 하며, '아트 팩토리'라고 불리는 스튜디오를 공장처럼 가동시켜 지극히 평범한 대상을 재생산, 예술품과 상품의 경계를 무너트린다.



제프 쿤스 Jeff Koons b.1955 American
Encased-Five Rows

basketballs, soccerballs, glass, plastic, steel
171.5×44.5×203.2(h)cm,
1983-1993
pedestal size: 192×65×17.5(h)cm
16~20억원

이번 경매에 출품된 제프 쿤스의 작품 <Encased-Five Rows>는 흑인 노동자 계층 청소년의 꿈인 'Hoop Dream(농구 선수로 성공해서 사회적 명성과 부를 얻고자 하는 꿈)'을 다룬 것이며, 또 다른 작품 <Cow (Lilac): Easy Fun>는 그가 작업 초기부터 즐겨 사용하던 소재인 거울을 이용한 작품이다. 농구공과 축구공을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 제작한 출품작 <Encased-Five Rows>에서 작가는 특별한 제스처 없이 농구공과 축구공의 브랜드를 그대로 노출하는데, 이는 1980년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큰 부와 성공을 가능케한 스포츠와 아메리칸드림에 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추정가는 16억원에서 20억원이다.

그리고 이우환과 박서보의 작품이 시리즈별로 다양하게 출품된다. 5점이 출품되는 이우환의 작품은 150호 <바람과 함께>가 9억원에서 12억원에, <점으로부터 No. 78065>가 3억5000만원에서 4억원에 경매에 오르고, <선으로부터 No. 76042>(2억8000만~4억원)와 <조응>(4억8000만~6억5000만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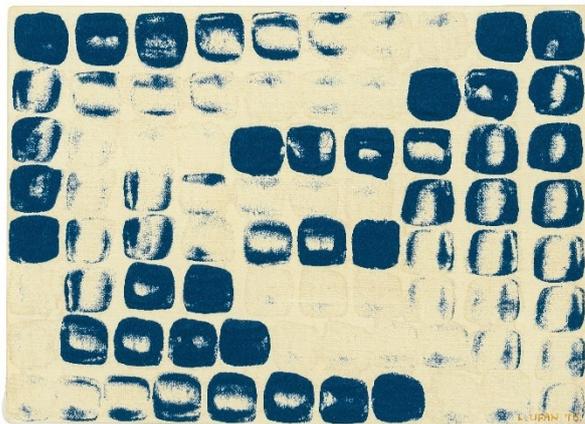
K Auction

있다. 특히 150호 <바람과 함께>는 매우 드물게 작품의 뒷면에도 작가가 작업한 흔적이 남아 있어 눈길을 끈다.



이우환 Lee UFan b.1936
바람과 함께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181.8×227.3cm (150), 1987
9~12억원

뒷면(re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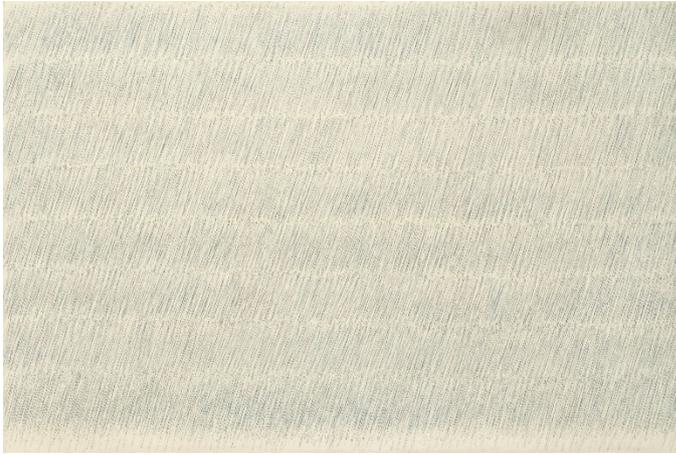


이우환 Lee UFan b.1936
점으로부터 No. 78065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24.2×33.4cm (4), 1978
3억5000만~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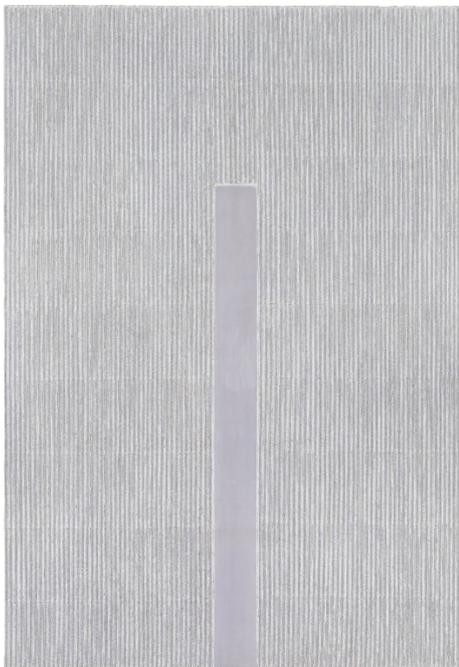
지난 달 작고한 박서보의 작품은 6점이 출품되는데, 초기 연필 묘법부터 후기 색채 묘법 시리즈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120호 사이즈의 초기 연필 묘법 <묘법 No. 48-75-77>은 6억원에서 15억원에 출품되며, 중기 지그재그 묘법 <묘법 No. 118-87>은 추정가 1억8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이다. 200호 사이즈의 <묘법 No. 020503>의 추정가는 5억5000만원에서 9억원이며, 판화 작품 <묘법 No. 16-21>

K Auction

은 추정가 5550만원에서 1억원에 경매에 오른다.



박서보 Park SeoBo 1931 – 2023
묘법 No. 48-75-77
oil and pencil on hemp cloth,
130.3×193.9cm (120),
1975-1977
6~15억원



박서보 Park SeoBo 1931 – 2023
묘법 No. 020503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259.1×181.8cm (200),
2002
5억5000만~9억원

고미술 부문에서 출품되는 <녹훈도감 선사어선 연회도 錄勳都監宣賜御膳宴會圖>는 2002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는 녹훈도감(錄勳都監)의 관리들이 제작한 계회도의 일종으로 1613년(광해군 5년) 3월 무렵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녹훈도감은 광해군이 위성(衛聖), 익사(翼社). 정운(定運), 형난공신(亨難功臣) 등 네 공신을 책봉할 때, 그 준비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청이다. 당시 녹훈도감의 관리들의 위로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내려 연회를 베풀자 이를 기념하여 녹훈도감의 관리들이 제작한 것이 바로 <녹훈도감 선사어선 연회도>이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녹훈도감 선사어선 연회도 錄勳都監宣賜御膳宴會圖
비단에 수묵채색 83×69cm, 1613
3000~6000만원

그림의 상단에는 '녹훈도감 선사어선 연회도(錄勳都監宣賜御膳宴會圖)'라는 표제가 적혀 있고, 그림의 마지막 하단에는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칠언시 「제녹훈도감계회도(題錄勳都監宴會圖)」가 쓰여 있다. 시 말미에 '萬曆癸丑(만력계축)'이라 적혀 있어 제작 시기인 1613년임을 알 수 있다. 이 계회도는 원래 4단으로 된 족자(簇子) 형식이었으나 연회의 참석자 명단을 적은 좌목이 훼손되었다.

녹훈도감 관리들의 계회는 기록으로도 드문 사례인데, 이를 그린 계회도라 더욱 희소하고 흥미로운 자료로 평가된다. 더욱이 광해군 때인 조선 중기의 연회 모습, 연회에서의 연주자 및 악기 배열 양상, 춤사위, 복식 등을 알게 해 주는 사료이며, 연회의 변천양상 및 시대상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추정가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다.

- 끝 -